

몸·마음 '순수'로 일치시켜야

선을 하되 반드시 증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워야 해요.”

스님은 경전공부로 기초를 다진 연후에 참선 문에 들라고 당부하신다.

“어렸을 때 먹어야 할 게 있고 어른이 먹어야 할 게 있습니다. 초심자가 참선문부터 들어가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녹용을 먹이는 것 같은 우를 범할 수도 있지요. 경전 말씀을 통해 발심을 견고하게 하고나서 참선 수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전을 하나도 공부하지 않고 참선만 하면 진전이 없단다. 참선을 해서 한 경지를 얻었을 때 그 경지에서 나온 말이 부처님 말씀과 똑같아야지, 부처님 경지는 얻었지만 그 말이 부처님 말씀과 다르다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라. 그리고 참선을 하되 경전과 같이 할 것을 당부했다.

“탄허 스님의 지도방침이 공양주는 행자는 공부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양주가 화엄경 공부를 하는 바람에 탄허 스님을 비롯한 전 대중에 3년간 점심공양은 찬밥을 먹어야 했지요. 나중에는 부목까지도 공부를 하는 바람에 영은사 주지 스님이 나무하고 등짐 나르고 다했어요. 알고 보면 그때 주지 스님도 보살인거여. 탄허 스님은 저녁 9시만 되면 방문객이 있던 없든 반드시 잠자리에 들어서는 새벽1시든 2시든 늘 첫잠이 깨면 일어나서 정진하셨어요. 공부를 하려면 먼저 몸을 조복받아야 해요. 몸을 조복받는다 것은 오욕을 다스린다는 것인데, 이것 절대 쉽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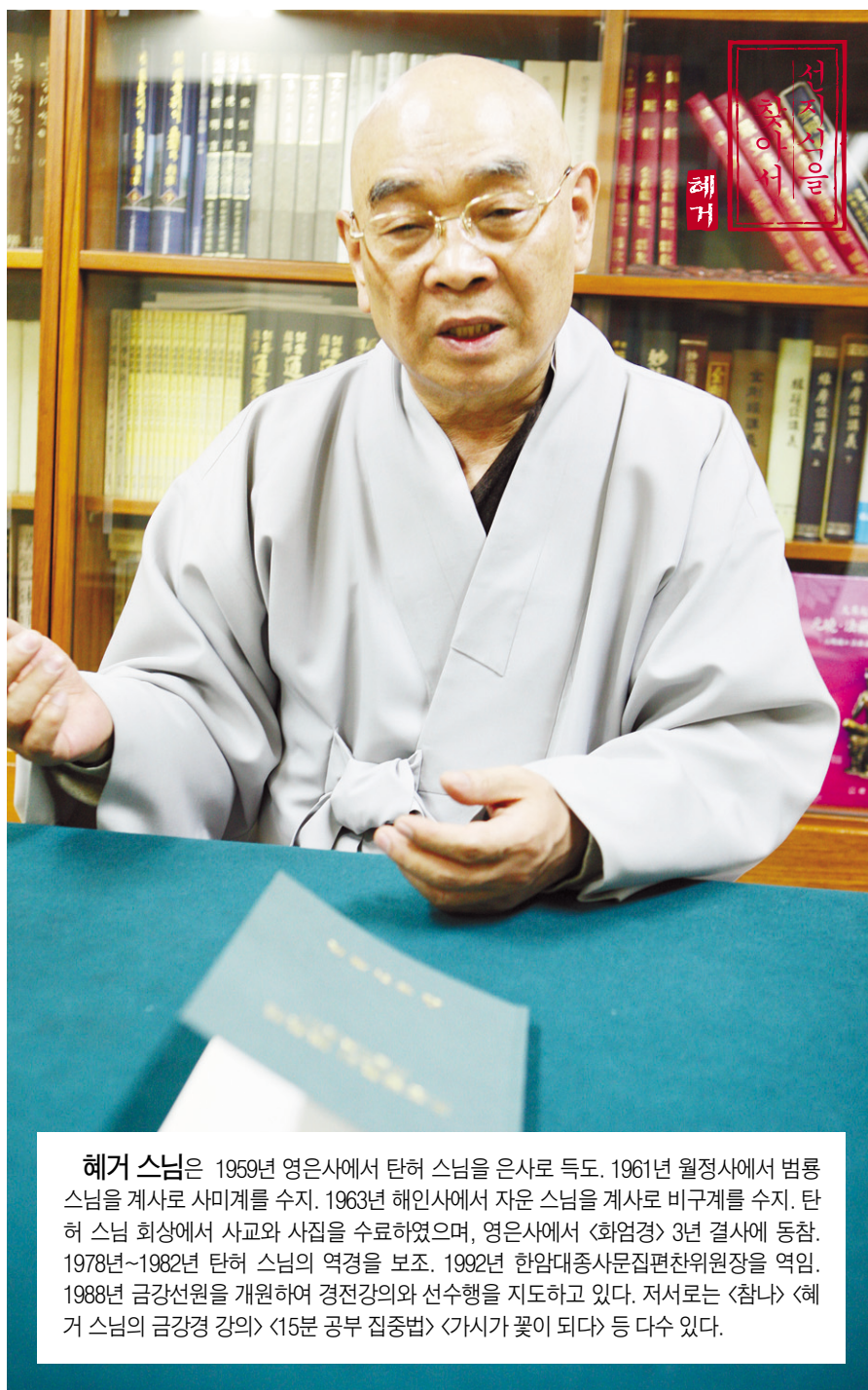
증생은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몸이 해서 안 될 일을 마음이 하고자 하며, 마음으로는 하지 않아야 함을 알지만 또 몸이 자체되지 않으면 이성과 감성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단다. 만약에 사람이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한결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일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 또한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해거 스님은 지금 우리나라는 지식의 포화상태이기에 지식에 지식을 더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지식을 하나씩 버려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제는 지식을 인격화해야 할 때입니다. 인격화의 첫걸음은 ‘아상 인상 증생상 수자상’을 다 없애는 것입니다. 경전 하나하나를 인격화하는 것이지요. 지식을 인격화하는데 불교가 또 불자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해거 스님은 불교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면서 우선적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우리의 전통 관혼상제(冠婚喪祭)를 살려내야 하는데 불교가 앞장서야 합니다. 둘째는 각 기업체마다 불자회를 만들어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불자회가 잘 되어 있는 곳은 노사분쟁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불교 신도는 종자가 달라서 양보를 진차 잘 합니다. 육십 년대 서울 세검정에 수십 채의 절이 기독교인에 의해



불태워졌을 때도 불자들은 그에 대해 아무런 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만 보아도 불교 단체가 얼마나 나라에 안정을 주고 있는 지 국가가 알아야 해요. 셋째는 참선을 전 국민에게 보급해야 합니다. 참선은 세상 살아가는 사람의 양식이기에 사람이면 무조건 참선을 시켜야 합니다. 자꾸 도(道) 통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몸과 마음을 극복하는 순간 도(道)는 열리게 돼있어요. 도란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내가 나를 극복하고 나면 그 길이 저절로 보이는데 자꾸 허깨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답답해요.”

해거 스님은 대만의 '자광사'라는 절은 병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36. 조계종 최장수 도인 해암 대선사

해암(1886~1985) 스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Orange County)에서 처음 보였. 101살에 미국에 오셨기 때문에 벽사도인(辟邪道人; 샛된 기운을 몰아내는 도인)이 오셨다 하여 아단이 났다. 한번 보고, 한번 만져만 보아도 다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하는 일이 원만히 성취된다고 하여 해암 스님 뵈고자 하는 사람들이 2km는 좋게 늘어서 있었다.

스님은 정원에 앉아 인사를 받고 한번 악수를 하면 그 옆에 봉투가 산더미처럼 쌓이니 서민들은 복을 구하기 위해서 오지만 기업인들은 '저 분을 어떻게 모셔 저 봉투를 내가 챙길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묘봉 스님이 옆에서 시봉을 하고 탑골공방에서 온 비구니 스님이 비지

를 역임하시고, 덕숭산에 이르러 마지막 20년을 지내며 덕숭산 가 풍을 계승하였습니다. 그제 100세에 미국에 들어오셔서, 오늘 101세가 되었으니 미국에서도 이만한 수명을 누린 분이 드물다. 더군다나 도인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소리 높여 외쳤다. “해암 스님 만세, 해암 스님 만



101세에 미국서 법문 “말 타고 사니까 자기 소는 잊었지”

땀을 흘리며 찾아온 손님들을 접대하였다. 사회자가 말했다.

“큰 스님께서서는 12세에 부친상을 당하고 이듬 해 양주 수락산 흥국사에 들어가서 15세에 이보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였는데, 2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가 어머니께서 타계하시니, 사고무친(四顧無親)이라 4방 8방으로 은둔행각을 하셨습니다. 23세에 비로소 발심, 서해담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고, 28세에 박성월 스님에게 처음 화두 법문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 후 만공 스님, 혜월 스님, 용성 스님, 한암 스님을 모시고 용맹정진 하니 만공 스님께서 친히 전법계를 주셨다 합니다.

“구름과 산은 같고 닮은 것이 없듯이/ 큰 강 또한 없는 것이지만/ 여의주·글 없는 도장술/ 그대 해암에게 전한다.”

스님은 그 뒤에는 묘향산, 상원사, 정선 정암사, 구갈래사 주지

세.” 여지 저거서 만세 소리가 터져 나오니 기분 따라 도네이순(donation; 보시)이 수 없이 쏟아졌다.

이 일로 인해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고생하던 스님들은 몇 개월 동안을 편안히 지낼 수 있게 되었고, 미국내 한국불교의 위상이 한껏 높아졌다.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

“역시 사람은 오래 살아야 하는가 보다. 100세 살기도 어렵지만 백세를 살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저렇게 기쁨을 주고 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안락을 주고 있으니 얼마나 장한 일인가.”

그런데 스님께서 뜻밖의 법문을 하셨다.

“옛날 내가 천은사에 있을 때 70이 훨씬 넘은 노장이 왔어요. 날마다 집에 가서 아침 저녁 쌀을 내 주고, 소여물까지 챙겨 놓고 온 노장인데 허리춤에 키(열쇠)가 열다섯 개는 되었을 거

야...”

청중들은 모두 자기 허리춤에 달려있는 키를 보고 킁킁 거리고 웃었다.

“그런데 젊은 수좌들이 나에게 물었거든.”

청중이 있다가 큰 소리로, “무엇이라고 물었지요?”

“‘소타고 소를 찾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외쳤다. 그 노장이 갑자기 일어나 손뼉을 치고, ‘맞았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여.”

그래서 젊은 스님께서는 “저 노장이 미쳤나?”했지만, 내가 점검하고 인증해 보니 틀림없었어. 만일 여러 분에게 이 문제를 제시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든 대답하겠습니까?”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자, “내 그럴 줄 알았어. 미국 와서 말 타고 사시니 자기 소는 다 잊어버렸지 뭐.”

박장대소가 쏟아졌다. 한 사람이 물었다.

“그건 그렇고, 그 스님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를 서광사 조실로 천거했거든. 그런데, 여기는 조실 될 사람이 하나도 없네. 만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거든 밤낮없이 정진하여 내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점검할 기회를 달라고!”

“하 하 하.”

“우지 말고 진정으로 한 말이야”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

해암 스님은 그 뒤로 일 년 있다가 덕숭산 문중에서 입적 하셨다. 스님의 해암고 친진한 모습, 비구니스님들이 시봉을 해도 이 미 넘어서는 떠나있었기 때문에 마치 갓난아이를 보살피듯 조심스럽게 모셨다. 덕숭산 문중에 많은 수좌가 있으나 해암 스님처럼 복(福)수용한 스님은 드문 것 같다.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증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초혼·재혼 -

결혼정보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공함을 보고 공함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들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초혼·재혼 일본으로 결혼 하실 여성분

해성불원자비회는 봉사단체로서 실비로 여러분의 인연을 맺어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라고 노력하는만치 완전 무결함을 우선으로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담당: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1-494-9595 / 전화 032)886-1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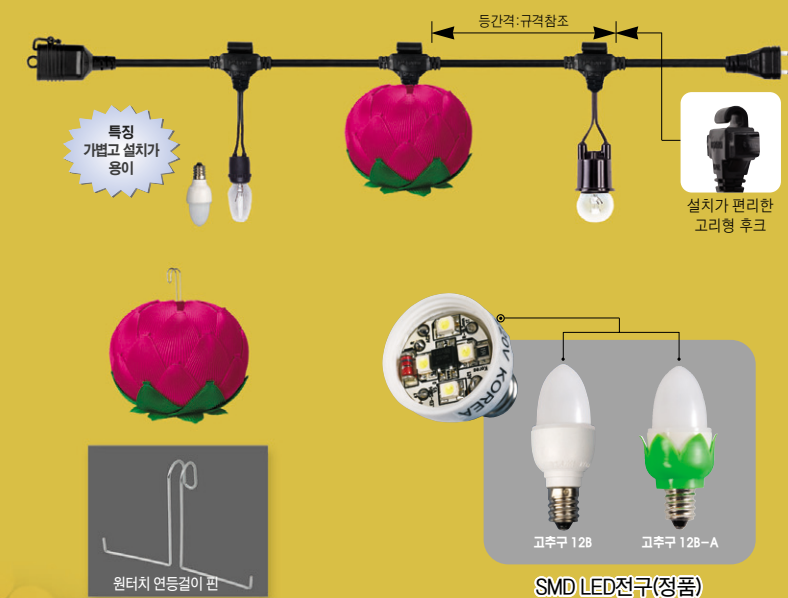
베트남 관음사 사찰과 자매결연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있게 일괄 처리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 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법당용, 외곽용
-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양으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필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간전지용초, 방생, 탐등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결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기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